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2)

계율 연구 업적 대중포교로 회향

‘학문과 전법’ 하나로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



목정배 교수는 ... 목정배 교수는 1937년 경남 사천 출생.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철학박사. 동국대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과 불교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한국불교대원회 이사장, 한국불교학회 회장, 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이다. 주요 논문은 <의적의 보살계본소 연구> 등 60여편, 저서는 <삼국시대의 불교> <대승보살계 사상> <한국문화와 불교> <계율론> <계율학 개론> <한국불교학의 현대적 모색> 등 40여권이 있다.

도심 시장동의 소음도, 쏟아지는 땀방울도 약속등에 위치한 법사원불교대학에는 닿지 않았다.

6월 20일 서울 약속동 대한불교법사회 법사원불교대학을 찾았다. 문을 열자마자 하얗게 섰 머리의 목정배 교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동국대 대학 강단에서 은퇴한 후 9년이 넘게 법사들을 지도하고 있는 미천(彌天)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76).

잔주름과 눈매, 굵은 손은 평생을 대학강단에 서 온 연륜을 드러냈다. 그러한 생각도 잠시, 나이가 무색하게 악수를 하기 위해 잡은 두툼한 손에는 직필의 힘이 살아있었으며 주름사이에 번득이는 눈에서는 정광이 넘쳐흘렀다.

1980년대 목정배 교수의 강의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강당으로도 유명했다. 500명 수용의 동국대 중강당에 1500여 명이 모여 강의 시작 전 우르르 자리를 잡기위해 뛰어가는 모습은 강단에서 그의 위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1958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첫발을 디딘 후 그는 지금까지 40여 권의 저술과 60여 편의 논문을 썼다. 특히 계율 분야의 대가로서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후학들을 양성했다.

계율로 대변되는 그의 학문적 업적은 대중포교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삶 속에서 치열히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자 하는 계율 정신이 대중포교로 발현된 것이다. 대학 1학년 때 이미 전국 각지에서 불교강연을 시작한 그는 불법홍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조직화 및 대중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대학생과 청년불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팔기발 법회, 등산 법회 등을 이끌기도 했다.

또 80년대 초 (아사달)을 발간해 청소년 포교에 나섰으며 17년간 (대원회보)를 발간하기도 했다. 1988년에는 (사)대한불교법사회를 창립하고 부설 법사원불교대학을 운영, 현재까지 120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법사를 폄수했다. 97년부터는 <법수례>를 매월 발간하며 나이가 무색한 열정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짧은 강의라도 강렬한 메시지가 있었던 시원시원하고 유쾌한 그의 스타일은 대중예술에의 관심으로도 뻗는다. 수많은 시를 비롯해 특유의 붓 글씨체와 그림을 통해 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목정배 명예교수의 전법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지키기 못할 게 받지 않겠다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목정배 교수는 6·25전쟁으로 부산에서 해동중과 해동고를 다녔다. 모태신앙으로 갖고 있었던 불교와의 인연은 이때 깊어진다. 바로 통도사 극락암에서 당대의 선지식인 경봉 스님을 만나면서 부터다.

중·고등학교 시절 부산 대각사 등을 다니며 부산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 목 교수는 출가의 기회가 생기기도 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였다. 삼소굴에서 경봉 스님은 목 교수에게 출가를 권했다. 천수경을 외우고 참선하고 있는 그에게 경봉 스님은 '이왕 왔으니 머리 깎고 중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계를 받는 것이었다. 목 교수는 수계 당일날 도망쳐 나오야만 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오게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살다보면 거짓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불망어계를 어떻게 지키겠어?”

목 교수는 어린마음에 평소 스님들로부터 ‘거짓말하면 통도사 사천왕문의 금강역사가 와서 후드려 팬다’는 말이 떠올랐다고 회했다.

고등학교 학창 시절 절에서 수행하다 다시 나왔으니 학교로 돌아가야만 했다. 목 교수는 해동고 3학년으로 복학하려 했으나 출가기간 동안 결석으로 인해 복학이 힘들다는 답을 듣게 된다. 다행히 불법과의 인연이 깊어서 인지 도음의 손길이 있었다.

당시 해동고 이사장인 박대관 스님(당시 통도사 주지)이 “다른 곳도 아니고 통도사 극락암서 공부했으니 허락하시오”라고 특별히 그의 복학을 지시한 것이다.

계율전공 1세대...참똥 널리 퍼

재가자 10선계 잘 지키면 훌륭한 삶

1988년 대한불교법사회 창립

현재까지 1200명 법사 배출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첫회 주도

“흐뭇한 ‘대작불사’ ...지속되길 희망”

바른 신행 위해 世諱 불교운동 주창

“자기에게 빚지거나 부끄럽지 말자”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목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목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 진학에 대해 처음에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목 교수는 당시 개설된 서울대 원자물리학과와 전액 장학금을 제시한 조선대를 고민했다.

“수학과 물리, 철학을 잘했던 나는 물리공부를 위해 서울대와 조선대를 고민했었다. 그때 불교학이 우주철학을 품고 있어 물리학과도 상통한다는 조언을 들었지. 또 학비는 종립고등학교 졸업생이면 중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해서는 종비장학과 학과 우수장학 수혜를 같이 받았다. 목 교수는 중·고등학교 때 현재방을 다니며 일본의 불교서적까지 탐독한 상태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한글로 된 불교서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신심을 갖고 선행학습까지 한 목 교수가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1958년 당시에는 김동화 박사의 <불교학개론> 외에는 모두 판서였어. 한 강자 다해도 강의노트가

20페이지가 넘지 않았어. 공부하기가 수월했지”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목 교수는 이때 학비 외에 받은 장학금을 술 마시는데 썼다고 전했다. 목 교수는 3학년 때는 수원 용주사, 김천 직지사, 대구 능인고등학교 마산 추산동 포교당 등을 돌며 전국 순회강연을 하기도 했다.

이런 그를 아낀 스승이 바로 <화엄학 개론>을 쓴 김익석 박사였다. 김익석 박사는 화엄·구사·유식·삼론의 대가였다. 목 교수는 유식을 전공해 1964년에 <근본 식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시련이 닥쳐왔다. 김 박사가 타계한 것이다. “어려움이 많았지. 나를 자기 제자처럼 생각하고 공부를 시키셨는데 돌아가셨으니..”

잠시 방황하던 그를 다시금 잡아 준 것도 불교 안에 있었다. 1965년 목 교수는 도선사에서 청담 스님을 만났다. 청담 스님에게 어려움을 토로하자 스님은 당시 명함을 ‘이 명함을 가져간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써주며 이한상 대한불교신문(現 불교신문) 사장을 찾으라 했다.

그 후 목 교수는 불교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당초 수요일 원고 마감에서 교정 등을 담당했지만 강의시간을 제외하고는 신문에 매일 출근했다.

1968년 전국신도회가 창립되며 전국신도회에서 잡지 <법륜>을 만들자 목 교수는 이 잡지 발간에도 참여한다.

초대 계율 전공 학자로

1969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조교로서 학교로 돌아온 목 교수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전임강사가 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년 후배까지 모두 강의 배정을 받았지만 목 교수만 강의배정을 못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 전환점은 71년 찾아왔다.

“71년 교과개편에 참여했는데 해화전문화교과지에 있었던 ‘계율’ 과목이 동국대가 되며 없어서 이를 넣었지. 74년 ‘계율학’으로 과목이 신설됐는데 강의할 사람이 없으니 결국 나한테 돌아오더라고”


목 교수는 원효·승장·의적·태현 스님이 찬술한 <법광경> 주석서를 모두 섭렵하고 번역을 마쳤다. <의적의 보살계본소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목 교수는 동기 중 제일 먼저 전임이 될 수 있었다.

목 교수가 계율 전공자로 우선 생각한 것은 계율에 대한 인식변화였다. 당시에는 계율에 대해 ‘부처님 당시 승단 유지규범’ 정도로만 여겨져 왔다. 현시대에 맞지 않는 속박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했다.



목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계율이야말로 다른 골데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절경이라고 강조했다. 목 교수는 계율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율학 개론>, <계율론>등 계율과 관련한 7편의 저술과 20여 편의 논문을 남겼다.

1999년 11월 제14대 한국불교학회 회장에 취임한 목 교수는 한국불교학회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목 교수는 특히 원만한 성격으로 많은 후학들이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계자, 중생구제,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에비스님)모집

매순간 마음 살핌이 '계'



미친 목적배 교수의 삶은 학자이며 포교사이며 수행자의 삶이었다. 목교수는 경전과 논서 등을 공부하는 것은 모두 마음자리를 살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따랐는데 그의 역량은 2002년 개최된 한국불교학계 집대회에서 드러난다.

한국불교학계집대회는 2001년 전국 30여 개의 학회 및 연구원과 전통교육기관들이 상호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불교학의 새 지평을 넓혀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초대 대회장장을 맡은 목정배 교수가 있었다.

1년의 준비 끝에 논문을 발표하겠다는 학자가 220명에 이르렀다. 일본, 중국, 미국, 방글라데시 등 6개국에서 50여 명의 외국인 학자들도 발표를 신청했다. 불교학계집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외국학자의 참여 수도 늘었고 한국불교학의 대외적인 위상도 크게 높아졌으나 아쉽게도 2008년 대회를 끝으로 열리지 못하는 상태다.

동국철강 장경호 거사가 세운 남산 대원정사와의 인연은 목 교수가 퇴임 이후 법사지도에 매진하게 한 계기가 됐다. 당시 대원정사 불교대학 강사로 운허·영암·성수·탄허 스님, 김동화, 홍정식, 이기영 박사가 초빙됐는데 막내로 목 교수가 참가한 것이다.

“대원정사서 강의할 때 장경호 거사와 그 사모님이 항상 청강했는데 그 인연으로 대원불교대 학장도 해보고, 잡지 대원 편집인도 해봤지. 대원은 초창기 불교를 대중화 하고 생활화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특히 재가자들이 다음날 올 버스트론까지 챙겨주는 장거사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후 목 교수는 교수 퇴임 이후 대한불교법사회를

“나의 서원은 ‘삼귀의’ 생활속 실천 오롯(佛)·반듯(法)·말끔(僧)하게”

이끌며 이당시 느낀 바를 재가자들에게 생활 속 지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펼치고 있다.

오롯하게 반듯하게 말끔하게

목정배 교수는 76세의 나이에도 매주 화·목·일 세 번씩 대한불교법사회에서 법회와 논강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전법활동을 펴고 있다. 매일 3~4째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부산, 양산, 대구 등으로 지방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목 교수의 이런 활동의 원동력은 바로 삼보에 대한 서원에서 나왔다.

목 교수는 먼저 원효·혜능 스님의 삼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삼보관을 소개했다. 목 교수는 “원효 대사는 불(佛)을 광명(光明), 법(法)을 정대(正大), 승(僧)을 화합이라 했다. 혜능 선사는 불은 각(覺), 법은 정(正), 승은 정(靜)이라 했다”고 말했다.

“깨달음과 맑음은 다름이 아니요. 머리를 깎으나 안 깎으나, 계를 받으나 안 받으나 평소의 삶이 부처님 닮아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목 교수는 자신의 서원으로 ‘오롯하게(佛) 반듯하게(法) 말끔하게(僧)’를 들었다. 항상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올곧게 오롯하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다.

말끔하게는 무엇일까. 목 교수는 “일상생활이 말끔하느냐는 남에게 빚을 지지 않고 또 내 자신에게도 빚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부끄럽다는 말은 있지만 자기 부끄럽다는 말이 없듯 자기 자신에게는 하는 언행이 빚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드물다. 목 교수는 자신에 대한 참회 정신을 말한 것이다.

“자기 자신 맑게 살려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 일거수 일수족이 뚜렷하고 청정해야 합니다. 부처님 바른 법을 우리 생활에서 스스로 펼쳐야 불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목 교수는 승단의 말끔함을 재가에서도 펼치고 있다. 거사불교 재가불교에 새 이름을 붙여 세제(世諦) 불교다. 현실세계에서 바른 불교 운동을 펴자는 의미다. 아침마다 좌선을 하는 목 교수는 “맑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항상 정진하는 마음으로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을 위해 화두를 들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목 교수는 “부처님 경전, 조사어록, 논서들을 보는 이유는 그 마음자리를 어떻게 찾았는가를 살피기 위함”으로 실천이 없다면 모두가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불자들은 10선계만 지켜도 훌륭히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현재진행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글=노덕현 기자 noduo@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지공거사의 웃음

신조어가 수 없이 쏟아지는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의 말을 알아듣기란 쉽지 않다. 언젠가 제자의 말이다. “학생시절에 범생이었어요”

말뜻을 물러 “그게 무슨 뜻이야”라고 반문 하였다.

“모범생”이라고 한다.

그저 “빙시레”

한 번은 머지않아 지공거사가 되겠다고 하기에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 하기도 하였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여지껏 버스타지 지하철을 이용하여 학교에 출퇴근 하였는데 이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니 기분이 묘했다. 우선 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 고개가 가우뚱 해진다. 세상에 내게 많은 것 싫다는 사람이 절반 없을 듯 하다. 그저 많으면 신나고 부러울 것이 없어진다.

연전에 한 학생의 말이 기억난다. “교수님은 존경스럽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니. 우리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더경이가 앉았다. “그대 교수가 강의와 연구를 열심히 해야 존경스럽지 지하철 이용한다고 존경스러울거야 있겠는가.”라고 답변하고 만 일이 있다.

여기서 거사(居士)라는 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와 중국에서의 의미가 다르게 쓰이기 때문이다. 거사는 집에 사는 선비, 혹은 집에 사는 남자라는 뜻이다. 범어 grihapati 에서 온 말이다. griha 는 ‘집’이란 뜻이고, pati 는 ‘집주인’이라는 말이다. 인도에서는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던 부호이다. 자산가로 당시 제3계급인 바이사 계급에 해당한다. 중국에서는 학덕은 높지만 관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몇 일전 일이다. 어느 때처럼 지하철을 탔다. 차 내에서의 일이다. 경로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불현 듯 누군가의 우렁찬 음성이 들렸다. ‘젊은이 앉아 감시다.’

처음에는 승객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라니 하고 흘려들었다.

재차, “젊은이 앉아 감시다.” 하였다. 그제서야 책에서 눈을 떼고 보니, 앞에 장승처럼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아마 내가 그 승객의 눈에 걸게 보였던 모양이다.

“이 자리는 몇 살부터 앉을 수 있습니까?”라고 정중히 물었다.

“65 세”라고 하였다.

“그 나이가 훨씬 넘었는데요.”라고 하니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나이 보다 어려 보여 ‘젊은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기쁜 날이다.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은 박장대소가 아닌 입가의 잔잔한 미소였다.

불현 듯 호계교를 건너 던 은자(隱者)의 웃음이 오버랩 되었다.

여산의 해원(慧遠)은 도연명을 초청하여 백련사(白蓮社)에 가입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해원은 불교를 대표하고 도연명은 유교를, 육수정(陸修靜)은 도교를 대표하고 있었다. 해원은 산책할 때 호계교를 넘지 않는다는 걸 엄수하였다.

그런데 도연명을 전송할 때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에 열중하다 무심코 그 다리를 넘어 버렸다. 그걸 알고서 세 사람은 깔깔 웃었다. 이 웃고 있는 장면은 ‘호계삼수도’ (虎溪三笑圖)라 하여 중국 회화에 흔히 있는 화제(畫題)가 되었다.

중국이 낳은 최대의 시인 도연명에게는 칠현금을 하나 가지고 있었으나 줄이 하나도 없었다. 칠현금은 옛날 중국 약기로 매우 부드럽게 타서 마음이 조용하게 가라앉았을 때만 음악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술에 취하면 줄 없는 칠현금을 쓰다듬어 그 풍취를 내려고 하였다.

거사는 집에서는 선비, 남자

‘호계삼수도’, 중국회화의 ‘화제’

도연명이 도피한 것은 ‘정치’ 뿐

〈귀거래사〉서 인간미 물씬 엿바

“거문고 속의 풍취를 얻었노라. 어찌 줄로써 소리 내기를 애쓰랴”라고 하곤 했다.

세상에서는 그를 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 하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그가 도피하고자 한 것은 정치이지, 인생 그 자체는 아니었다.

〈귀거래사〉에서 인간애를 흠뻑 느낄 수 있다.

이미 마음이 육신의 종이 되었으니, 어찌 근심하며 홀로 슬퍼하리오.

이제야 누추한 내 집을 보고 기뻐 달려가니, 사내중은 반겨 맞이하고 애들은 문에 나와 기다린다.

정원에 세 오솔길은 황폐했으나 송국(松菊)만은 아직 그대로구나.

어린 것을 데리고 방에 드니 술이 있어 독에 가득하다.

소동파의 그의 화도시(和陶詩)의 말미에 자기는 도연명의 환생이라고 했다. 원중량(袁中郎)은 소동파의 환생한 모습이라고 한다.

오늘의 주인공 지공거사는 누구의 환생일까. 자라라서 새소리에 귀 기울인다.

와불 법당안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법회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음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악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와불법당을 개설.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성지순례를 와불법당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시험합격, 사업변창, 학업성취, 자손득남, 운수대통, 무병장수

세계최대층 진신사리탑
(33층)

진신사리 1과가 3과로 자연증과된 신비한 영형 33층 진신사리탑

신비한 쌀바위(미암사)
(중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부인이 자손을 얻게 해달라고 공을 드려서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소원 성취하였으며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노화가 방지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신진대사가 원활해 집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보조사상연구원 | 100회 특집 정기월례학술대회

쟁점으로 본 보조사상

일시 : 6월 30일 13시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초대의 말씀

1987년 2월, 보조사상연구원 이 처음 창립의 깃발을 내건 이후 벌써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본원은 보조사상 지론의 상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 및 국내학술대회를 22회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는 6월 30일 마침내 정기월례학술대회 1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그간 학회 및 세간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주제를 중심으로 100회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그간의 쟁점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내일의 비전을 여는 자리가 되고자 하오니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조사상연구원 원장 이법산 합장

학술대회 일정

- ▶ 식전행사 [13:00~13:30] · 사 회 : 황정일(본원 기획실장) · 삼귀의례 | 반야심경 봉독 | 인사말 : 법산 스님(본원 원장)
- ▶ 제1부 주제 발표 I : 성철스님은 왜 보조선울 비판했는가 [13:30~14:20]
1. 이병욱(고려대) 사회 : 이덕진(장원문성대) | 논평 : 원충스님(전 성철사상연구원 연합실장) 휴 식 [14:20~14:30]
- ▶ 제2부 주제 발표 II :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공존할 수 없는가 [14:30~15:20]
2. 인경스님(동방대학원대) 사회 : 김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 | 논평 : 임승택(경북대) 휴 식 [15:20~15:30]
- ▶ 제3부 주제 발표 III : ‘절요사기’와 ‘간화선의론’에서의 간화선 법문과 그 문제점 [15:30~16:20]
3. 박건주(전남대) 사회 : 차차석(동방대학원대) | 논평 : 최연식(목포대) 휴 식 [16:20~16:30]
- ▶ 제4부 종합토론 [16:30~18:00] 4. 김호성(동국대)
- ▶ 사후서원 및 폐회사 [18:00]

Bojo Research Institute

보조사상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21-1 빌런사 3층
전화번호 02)733-5311/5315 FAX 02)733-5590 email : kamakim@gmail.com